

# 지시적 시제 이론의 가능성 및 한계: 종속 문장의 시제와 상의 해석을 예로†

강정구, 이재성, 박준식, \*박영찬, \*박동인,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과, 인공지능 연구센터  
e-mail: jgkang@world.kaist.ac.kr  
\*시스템 공학 연구소 자연어처리연구부 정보검색실

##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Referential Tense Theory: Interpretation of Tense and Aspect in Embedded Sentences

Jung-Goo Kang, Jae-Sung Lee, Junsik Park, \*YongChan Park, \*Dong-In Park, Key-Sun Choi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 System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Dept. of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Retrieval Lab

### 요약

본 논문에서는 Reichenbach (1947), Partee (1973; 1984) 및 Klein (1994)이 발전시킨 지시적 시제 이론 (Referential Theory of Tense)을 의미/통사론적으로 형식화함으로써 이 이론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의미/통사론적으로 형식화된 지시적 시제 이론을 종속 문장의 시제와 상의 의미 및 구조 해석을 위하여 도입함으로써 이 이론의 장점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 1. 도입

전통 시제 논리학에서는 시제를 시간을 개체로 갖는 존재 양화사(existential quantifier)를 도입하는 운용자(operator)로 해석한다.<sup>1</sup> 예를 들면, 과거 시제로 쓰인 아래 문장 (1- $\neg$ )은 (1-b  $\neg$ )과 같이 해석된다:

- (1)  $\neg$ . 철수는 학교에 갔다.  
 $\neg$ .  $\exists t[\text{가다}(\text{철수}, \text{학교}, t) \wedge t < \text{현재}]$

그러나 이러한 양화적 시제이론(quantificational theory of tense)은 자연어의 시제가 문

맥(context)에 따라 해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양화적 시제이론의 대표적인 비판자인 Partee (1973, 1984)는 문장 (2)를 예로 양화적 시제이론이 자연어 시제 해석에 적합치 않음을 보여준다:

- (2) I didn't turn off the stove.

양화적 시제이론에 따르면 (2)는 (3- $\neg$ ) 내지는 (3- $\neg$ )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둘다 (2)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 (3)  $\neg$ .  $\neg \exists t[\text{turn-off}(I, \text{the stove}, t) \wedge t < \text{현재}]$   
 $\neg$ .  $\exists t[\neg \text{turn-off}(I, \text{the stove}, t) \wedge t < \text{현재}]$

(3- $\neg$ )은 (2)의 발화자가 과거에 한번도 스토

† 본 논문은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은 '국어정보처리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sup>1</sup> Prior (1967)를 참조하십시오.

브를 끄지 않았다는 것을, (3-ㄴ)은 과거에 한번은 스토브를 켜었다는 것을 표현하나, (2)의 의미는 발화자가 과거의 특정한 시간에 스토브를 끄지 않았다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 즉, Partee 는 자연어 시제는 대명사와 같이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적 시제이론(referential theory of tense)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Partee 의 지시적 시제이론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한국어 (및 영어 그리고 독일어) 종속문장의 시제와 상의 해석을 위한 이론을 제안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시적이론에서 생기는 의미론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종속문장의 시간적 해석은 시제적 논항(temporal argument)을 결속이론적으로 분류하므로써 유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러나 이러한 시제의 해석은 일종의 de re 해석이며, de dicto 내지 de se 해석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밝힌다:

- (4) ㄱ. 영화는 철수가 아프다고 말했다.  
 ㄴ. 영화는 철수가 아팠다고 말했다.

## 2. 시간적 관계로서의 시제와 상

전통적으로 시제의 기능은 발화시(Time of Utterance)와 사건시(Event Time)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Wolfgang Klein (1994)은 시제를 통하여 보여지는 관계는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가 아니고, 발화시와 토픽시 (Topic Time)의 관계라고 한다. 여기에서 토픽시는 발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자 하는 시간 내지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시간 등을 의미한다. Klein 에 따르면,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는 시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정지어진다고 한다. 즉 상이 토픽시와 사건시의 관계를 규정하며 시제가 발화시와 토픽시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Klein 은 아래와 같이 시제와 상을 해석한다:

- (5) 시제  
 ㄱ. 현재 시제  
 발화시와 토픽시가 일치한다.

ㄴ. 과거 시제  
 토픽시가 발화시에 선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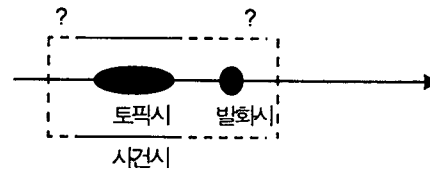
- (6) 상  
 ㄱ. 완료 상 (Perfective Aspect)  
 토픽시가 사건시를 포함한다.  
 ㄴ. 비완료 상 (Imperfective Aspect)  
 사건시가 토픽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Klein 의 시제와 상의 해석에 따르면 아래의 문장 (7-ㄱ)과 (7-ㄴ)의 차이점은 (7-ㄱ)에서는 사건시가 토픽시를 포함하고, (7-ㄴ)에서는 토픽시가 사건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7) ㄱ. 철수는 집을 짓고 있었다.  
 ㄴ. 철수는 집을 지었다.

(7-ㄱ)을 보면, 사용된 시제가 과거이므로 토픽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며, 또한 진행형, 즉 비완료 상을 갖고 있으므로 사건시가 토픽시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토픽시, 즉 발화자가 염두에 두고 말하는 시간이 비록 과거에 있으나 사건시, 즉 집을 짓는 시간이 토픽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을 짓는 사건이 발화시에 완결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8)



(7-ㄴ)은 (7-ㄱ)같이 시제는 과거이므로 토픽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나, 완료 상을 갖고 있으므로 사건시가 토픽시가 포함된다. 이 경우 아래의 도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건시가 완전히 과거에 놓여 있는 토픽시에 포함됨으로써 집을 짓는 사건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lein 의 이론에 따르면 상의 의미적 기능은 사건시와 토평시를 하나의 시간적 관계로 정하는 것이다: 완료 상은 토평시가 사건시를 포함하고, 비완료 상은 사건시가 토평시를 포함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직관적인 개념을 형식 의미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Davidson (1967)의 사건 의미론 (Event Semantics)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상의 해석 규칙을 제안한다:

(10) 상의 해석 규칙

- ㄱ. 비완료 상  
 $\lambda e \lambda t \lambda P [t \subset \tau(e) \wedge P(t)]$
- ㄴ. 완료 상  
 $\lambda e \lambda t \lambda P [\tau(e) \subset t \wedge P(t)]$

위의 해석 규칙에서  $e, t$ , 및  $P$ 는 각각 사건, 시간 그리고 시간의 집합을 나타내는 변수를 의미하고,  $\tau$ 는 한 사건을 인수로 받아 그 사건 시간의 진행시간, 즉 사건 시간을 값으로 주는 함수이다.

시제가 발화시와 토평시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한다는 직관은 아래의 해석 규칙을 이용하여 형식화 되어질 수 있다:

(11) 시제의 해석 규칙

- ㄱ. 현재 시제  
 $\lambda t \lambda t' [t = t']$
- ㄴ. 과거 시제  
 $\lambda t \lambda t' [t < t']$

### 3. 지시적 시제이론의 통사론적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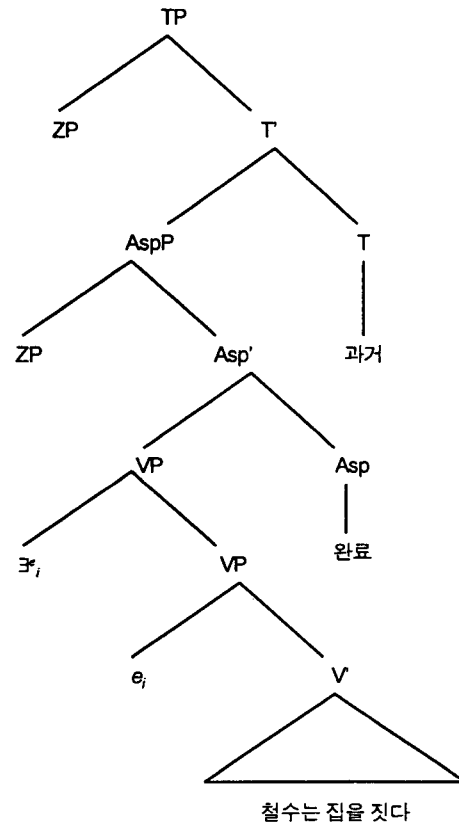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지시적 시제이론을 어떻게 통사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 3.1 시제와 상의 통사 구조적 표현

시제와 상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제와 상의 통사 범주인 시제구 (TP, Tense Phrase)와 상구 (AspP, Aspect Phrase)를 가정하며, 또한 시제(T)가 상구를 선택(select)하며, 상(Asp)은 다시 동사구(VP)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T와 Asp는 각각 Specifier 위치에 시간적 논항을 갖는데, 이

시간적 논항을 Stowell (1993)의 명칭을 따라 ZP (Zeit Phrase, 시간구)라고 명한다. 이 T와 Asp의 ZP 논항은 각각 발화시와 토평시를 나타낸다. 끝으로 VP는 일반적인 논항 외에 사건논항 (Eventargument)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한 문장이 사건을 기술한다는 사건의미론의 기본 전제를 통사 구조에서 이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sup>2</sup> 위의 가정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9-ㄱ)의 심층구조를 (9-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9) ㄱ. 철수는 집을 지었다.
- ㄴ.



#### 3.2 ZP의 결속이론적 분류

이 소단락에서는 En\_ (1987), Zagana (1992), Shin (1987) 및 Stowell (1993)이 시제가 대

<sup>2</sup>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건 (event)의 개념은 광의적인, 예를 들면 Bach (1986)의 eventuality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명사와 같은 명사 표현과 유사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지시적 시제이론을 통사론에 수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도한 시간 논항의 결속이론적 분류를 확장한 Kang (1994, 1996)의 이론을 따라 T와 Asp의 ZP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0) ZP의 결속이론적 분류

- ㄱ. TP의 ZP는 시간적 PRO이다.
- ㄴ. AspP의 ZP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i) 비완료상의 ZP는 현재시제일 경우 시간적 대응사(temporal anaphor)로 분류한다.
  - (ii) 비완료상의 ZP는 과거시제일 경우 시간적 대명사(temporal pronoun)로 분류한다.
  - (iii) 완료상의 ZP는 시간적 R-표현으로 구분한다.

3.3 ZP의 지표화

Partee (1973, 1984)에서 주장된 지시적 시제이론, 즉 시제가 시간의 존재 양화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대명사와 같이 문맥에 의존되어 해석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En<sub>-</sub> (1987), Zagona (1992) 그리고 Stowell (1993) 등에서는 시제 또는 시간적 논항에 지시 지표(referential index)를 줌으로써 통사론적으로 표현한다. 이 소단락에서는 시간 논항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3.3.1 주문장의 ZP

시간적 PRO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발화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주문장에서는 TP의 ZP가 항상 발화시를 나타낸다는 것을 유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문장 TP의 ZP는 선행사가 없으므로 통제 되지 못하여 항상 발화시 지표인 0을 갖기 때문이다.<sup>3</sup> 이 가정과 (10)의 ZP의 결속이론적 분류가 주문장의 ZP지표를 결정한다: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주문장 TP의 ZP는 항상 통제되지 못하여 발화시 지표 0을 갖는다. 현재시

제 비완료인 주문장에서는 토픽시인 AspP의 ZP가 (10-ㄴ-i)에 따르면 시간적 대응사이므로 Chomsky (1981)의 결속원칙 A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TP의 ZP가 유일하게 선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픽시 ZP는 TP의 ZP와 동일한 지표를 갖어야 한다. 주문장이 비완료 현재시제가 아니거나, 완료 상인 경우에는 AspP의 ZP, 즉 토픽시 ZP가 시간적 대명사 내지는 시간적 R-표현이므로 결속이론 B와 C에 따라 주문장(= 토픽시 ZP의 지배범주)내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즉 이 경우에는 AspP의 ZP가 TP의 ZP와 항상 다른 지표를 지녀야 한다. 이에 따라 (11)에서의 문장들은 아래와 같은 ZP의 지표를 갖게 된다.

- (11) ㄱ. 철수는 영화를 사랑한다.  
 [... ZP<sub>0</sub> ... ZP<sub>0</sub> ...]  
 ㄴ. 철수는 영화를 사랑했다.  
 [... ZP<sub>0</sub> ... ZP<sub>i</sub> ...]  
 ㄷ. 철수는 영화를 뽀뽀했다.  
 [... ZP<sub>0</sub> ... ZP<sub>i</sub> ...]

현재시제가 발화시와 토픽시를 동일한 시간적 관계로 정하고, 과거시제가 토픽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위의 ZP의 지표에 의하여 보여진다. 현재시제와 완료상이 같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은 완료 상을 가진 문장의 토픽시가 R-표현이므로 결속원칙 C에 따라 지배 범주내에서 자유로와야하므로 TP의 ZP와 다른 지표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가 의미적으로 토픽시와 발화시가 동일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종의 충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4</sup>

3.3.2 종속 문장에서의 Z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장의 PRO-ZP(= TP의 ZP)는 선행사의 결어로 항상 통제받지 못하며, 따라서 발화시 지표인 0을 갖는다. 그러나 (12)와 같은 문장의 종속 문장에서는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sup>4</sup> 따라서 영어 및 독일어 등에서는 현재시제와 완료형의 결합이 나타날 경우 상의 의미가 비완료적으로 전환이 되거나, 시제의 의미가 미래로 해석이 된다:  
 (1) Mary kisses John every morning (habitual reading)  
 (2) The train departs at five o'clock tomorrow morning: (futurative reading)

<sup>3</sup> 이러한 주장은 이미 Stowell (1993)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철수는 영희가 예뻐를 때렸다고 말했다.  
 $[... [_{TP} ZP ... [_{AspP} ZP ... [_{CP} ... [_{TP} ZP ... [_{AspP} ZP ...$

주문장 TP의 ZP와는 달리 부문장 TP의 ZP는 주문장 AspP의 ZP에 의해 성분지휘(c-command)를 받는다. 따라서 부문장 TP의 ZP는 부문장 AspP의 ZP와 동일 지표를 갖는다. 부문장 AspP의 ZP는 완료 상의 ZP이므로 (10)의 분류에 따르면 시간적 R-표현이므로 결속원칙 C에 따라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12)의 ZP들은 (13)과 같이 지표화가 되어야 한다.

(13)  $[... [_{TP} ZP_0 ... [_{AspP} ZP_i ... [_{CP} ... [_{TP} ZP_j ... [_{AspP} ZP_k ...$   
 $(0 \neq i \neq j)$

#### 4. 부문장의 상과 시제의 의미 해석

전 단락에서 전제한 시제와 상의 통사구조와 시간 논항의 지표화를 가지고 한 문장의 시제 및 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 단락에서는 간단히 보여 주려고 한다.

단락 2에서 도입한 상과 시제의 해석 규칙 (9) 및 (10)과 아래의 ZP 해석 규칙 (14)를 이용하면 문장 (12)에는 (15)와 같은 논리 표현(Logical Form)이 부여된다.<sup>5</sup>

(14) ZP 해석 규칙

ZP<sub>i</sub>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ㄱ.  $i = 0$  이면 발화시를 의미하는 상수  $t_0$ 으로 해석된다.
- ㄴ.  $i \neq 0$  이면 토픽시를 의미하는 변수  $t_i^{Top}$ 로 해석된다.

(15) 철수는 영희가 예뻐를 때렸다고 말했다.

- ㄱ.  $[... [_{TP} ZP_0 ... [_{AspP} ZP_i ... [_{CP} ... [_{TP} ZP_j ... [_{AspP} ZP_k ...$   
 $(0 \neq i \neq j)$
- ㄴ.  $\exists e[t_i^{Top} < t_0 \wedge \tau(e) \subset t_i^{Top} \wedge \text{말하다}_{\omega}(e, \text{철수}, \lambda w \exists e' [t_j^{Top} < t_i^{Top} \wedge \tau(e') \subset t_j^{Top} \wedge \text{때리다}_{\omega}(e, \text{영희}, \text{뽀뽀})]]]$

(15-ㄴ)은 철수의 토픽시가 과거이고 “철수가 영희가 뽀뽀를 때렸다고 말한 사건”도

<sup>5</sup> 상세한 논리 표현 유출을 위한 규칙은 Kang (1996)을 참조하십시오.

과거에 놓인 철수의 토픽시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과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철수가 진실을 말했다면, 영희가 뽀뽀를 때린 시간이 철수의 토픽시를 선행하는 부문장의 토픽시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철수가 말한 사건보다 앞에 일어났음이 (15-ㄴ)은 의미한다. 즉 (12)에서 부문장의 “때린”사건이 주문장의 “말한”사건보다 선행한다는 해석이 올바르게 유출된 것이다.

(16)과 같은 문장에서 부문장의 사건이 주문장의 사건과 동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유사하게 유출된다.

(16) 철수는 영희가 아프다고 말했다.

- ㄱ.  $[... [_{TP} ZP_0 ... [_{AspP} ZP_i ... [_{CP} ... [_{TP} ZP_j ... [_{AspP} ZP_k ...$
- ㄴ.  $\exists e[t_i^{Top} < t_0 \wedge \tau(e) \subset t_i^{Top} \wedge \text{말하다}_{\omega}(e, \text{철수}, \lambda w \exists e' [t_j^{Top} = t_i^{Top} \wedge t_i^{Top} \subset \tau(e') \wedge \text{아프다}_{\omega}(e, \text{영희})]]]$

(16)의 부문장은 비완료 현재시제를 갖고있다. 따라서 부문장의 AspP의 ZP는 (10)의 분류에 의하면 시간적 대용사이므로 결속원칙 A를 지키기위하여 지배 범주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16-ㄱ)을 보면 부문장의 AspP의 ZP는 주문장의 AspP의 ZP에 의하여 결속이되므로써 결속원칙 A를 만족시킨다. (16-ㄴ)에서는 (15-ㄴ)과 달리 부문장 토픽시가 사건시에 포함되어있는 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철수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영희가 아픈 시간이 철수의 토픽시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16-ㄴ)이 나타낸다. 또한 철수가 말한 시간이 토픽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희가 아픈 시간에 포함되어 철수가 말한 시간에 영희가 아팠다는 사실을 (16-ㄴ)은 보여준다.

#### 5. 문제점

지금까지 보여준 바와 같이 지시적 시제이론은 결속이론적 시간 논항의 분류와 시간 논항의 지표화를 통하여 통사론적으로 시제와 상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기한 이론은 “말하다”와 같은 내포적 동사(intensional verb)의 목적절에서의 시간 논항을 주문장의 시간 논항에 고정하여 해석을 한다. 즉, “말하다”와 같은 동사가 의미적으로 명제(proposition)을 보여로서 취하는데 그 명제를 단순히 세계의 집

함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Stechow (1995b, 382)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예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 (17) ㄱ. Mary believed that it was raining.  
 ㄴ. It is five o'clock. The sky is dark and there is a gloom in the air. Mary thinks: It's seven o'clock, and it is raining.  
 ㄷ. I believe that it is raining now.

(17-ㄴ) 상황에서 Mary가 John에게 (17-ㄷ)을 말했다고 전제하면, Mary는 다섯시에 일곱시라고 믿으며, 또한 비가 내린다고 믿는다. 본 논문에서 전개한 이론의 문제점은 이러한 해석을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전개한 이론에서는 부문장의 시간 논항을 주문장의 시간 논항에 고정시켜 통사적으로 시간논항의 의미를 유출하기 위하여는 명제가 세계와 시간쌍의 집합이 아니고 단순히 세계의 집합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7)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부문장의 시간 논항이 주문장의 시간 논항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었다는 해석, 즉 *de dicto* (내지는 *de se*)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에서는 추가적 가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sup>6</sup>

##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시적 시제이론의 기본 개념을 의미/통사론적으로 확장하여 시간 논항의 해석을 통사적으로 유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시간 논항의 *de dicto* (내지는 *de se*)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 주므로써 이 방법론에서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 참고문헌

Abusch, Dorit (1994): Sequence of Tense Revisited: Two Semantic Accounts of Tense in Intensional Contexts. In: H. Kamp, ed.,

<sup>6</sup>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은 Kang (1996)에서 시도되었으나, 많은 추가 가정을 요구 하므로 결국은 본 논문에서와 같은 접근방법의 장점을 매우 약화시킨다.

- Ellipsis, Tense and Questions*. Dyana-2 Esprit Basic Research Project 6852, Deliverable R2.2.B.
- Bach, Emmon (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 Philosophy* 9, 516-522.
- Binnick, Robert (1991):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ense and A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Oxford.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Binding*. Foris, Dordrecht.
-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Donal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ittsburgh.
- Dowty, Davi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Reidel, Dordrecht.
- Dowty, David, R. Wall & S. Peters (1981): *Introduction to Montague Semantic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 Enç, Mürvet (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 633-657.
- Heim, Irene (1994): Comments on Abusch's Theory of Tense. Ms. MIT.
- Kang (1994): Aspectual Influences on Consecution Temporum. In: A. Bisetti, L. Brugé et al. eds., *ConSole 3. Proceedings*, 139-153.
- Kratzer, Angelika (1989):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Ms., Univ.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Lee, Hyo 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Montague, Richard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R. Thomason, ed.,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247-270.
- Nohl, Claudia & Arnim von Stechow (1995): *Interpretation syntaktischer Strukturen. Eine Semantikeinführung anhand des Deutschen*. Universität Tübingen. SFS-Report-07-95.
- Ogihara, Toshiyuki (1989): Temporal References in English and Japanese. PhD thesi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Ogihara, Toshiyuki (1996): *Tense Attitudes, and Scope*.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Boston/London.
- Partee, Barbara (1973): 'Some Structural Analogies Between Tenses and Pronouns in English', *Journal of Philosophy* 70, 601-609.

- Partee, Barbara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 Philosophy* 7, 243-286.
- Prior, Arthur (1967): *Past, Present, 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Reichenbach, Hans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The Free Press, New York.
- Shin, Sung-Ock (1987): Tense Anaphora in Complex Constructions. In: S.-Y. B.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Proceedings of the 1987 Harvard Workshop on Korean Linguistics (Harvard WOKL-1987)*. Hanshin Publishing Company, Seoul.
- Stechow, Arnim von (1995a): On the Proper Treatment of Tense. In: M. Simons & T. Galloway, eds., *Proceedings of SALT V*, 362-386.
- Stechow, Arnim von (1995b): Tense in Intensional Contexts: Two Semantic Accounts of Abusch's Theory of Tense. In: F. Hamm, J. Kolb & A. von Stechow, eds., *The Blaubeuren Paper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 Volume II*. Universität Tübingen, 379-433. Sfs-Report-09-95.
- Stechow, Arnim von (1996): Tense, Aspect, and Resultativity. Ms.
- Stowell, Tim (1993): Syntax of Tense. Ms., UCLA.